

속도 경제의 부상과 근대적 주체성:

인간학의 모델, 존재론적 차이와 시민 주체

안정옥

국문요약

19세기 말에서 1920년대에 걸쳐 유럽과 미국에서는 노동하는 신체가 크게 주목을 받는다. 19세기까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였던 노동윤리, 세기 전환기에 부상한 유럽 노동과학, 미국 경영과학, 그리고 사회운동은 노동하는 신체와 서로 다른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한다. 이 시기 유럽에서 현대화가 진전되고 미국에서 조직혁명(법인혁명과 경영혁명)이 속도 경제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이 현저해진다. 노동윤리는 노동에 기초한 자기소유 또는 자기소유의 토대로서 노동을 주체성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노동의 인간학이 발전하는 데 기여한 종교이념적인 토대였다. 노동과학은 노동하는 신체의 과학을 발전시킨다. 이 과정에서 노동하는 신체와 주체성을 분리하고, 노동을 신체의 에너지 지출로 정의함으로써 노동의 인간학을 폐기한다. 경영과학은 조직혁명을 통해 속도 경제의 이행 조건을 마련하는 데 속도 경제가 부상하는 과정에서 노동의 인간학의 위기가 부상하고, 노동의 인간학의 한계라는 문제가 떠오른다. 사회운동은 시민으로서 노동자와 여성의 권리를 둘러싸고 저항과 타협을 시도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속도 경제의 부상이

안정옥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사회학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411-J01602).” 이 연구의 초기 구상은 비판사회학대회(2007년, 10회)에서 간단한 형태로 토론되었다. 이 논문은 문헌 자료 조사와 연구를 대폭 확장하여 진행하였으며, 경제 모델의 구조 변화라는 조건 속에서 개인적이고 집합적인 존재로서 시민 주체의 사회적 역능화 모델을 인간학과 존재론의 차원에서 접근하며 마련하기 위한 담당 과제의 기초 작업이다.

근대적 주체성의 모델의 변화에 대해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상하는 신체의 한계(존재론적 안전)와 성적 경계(존재론적 차이) 문제가 인간의 고유성을 정의하는 인간학적/문화적 상징화의 억압/승인/ 또는 해체/전위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를 살피는 것이 핵심이다. 20세기로의 전환과 21세기로의 전환은 주체성 모델의 인간학(문화)적 위기와 존재론(자연)적 위기가 동시에 부상한 시기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속도 경제로의 이행기에 나타난 주체성 모델의 위기에 대한 검토는 현재에 대한 비교준거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 주체의 모델에 대한 인간학적, 존재론적 접근의 적실성을 확인하는 의미도 가질 것이다.

주요어

속도 경제, 근대적 주체성, 인간학의 모델, 존재론적 안전과 차이, 시민 주체

1. 문제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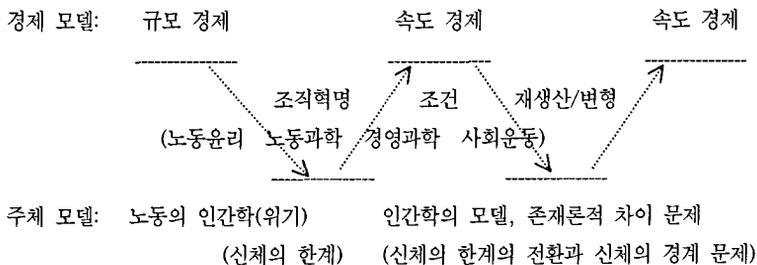
19세기 말에서 1920년대에 걸쳐 유럽과 미국에서는 노동하는 신체가 크게 주목을 받는다. 19세기까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였던 노동윤리, 세기 전환기에 부상한 유럽 노동과학, 미국 경영과학, 그리고 사회운동은 노동하는 신체와 서로 다른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한다. 이 시기 유럽에서 현대화가 진전되고 미국에서 조직혁명(법인혁명과 경영혁명)이 “속도 경제”(Chandler, 1977: 281-83)¹⁾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이

1) 19세기의 규모 경제에서는 생산성 증가가 고정자본 규모(기계화)의 증가에 비례한다면, 속도 경제는 기본적으로 고정자본의 증가 속도를 능가하는 생산성의 증가 속도를 실현하여 고정자본 비용과 노동 비용을 절감한다. 미국은 경영관료제(경영혁명)가 원료조달, 생산과 유통을 수직·통합하는 경제의 조직형태로서 법인자본주의가 보편화되는 1920년대까지 속도 경제로의 이행을 완료한다. 이와 함께 섬유 산업에 한정되었던 영국과 달리 모든 산업분야에서 기본적으로 기계계 대공업이 확산되며 법인자본주의의 조직형태가 마련된다 (Chandler, 1977, 1990; Arrighi, 1994). 1930년대 대공황의 대량실업은 1920년대까지 한 계산업과 한계기업으로 몰린 부문이 금융 위기와 상호작용하며 대량파산하며 경제위기가

현저해진다. 노동윤리는 노동에 기초한 자기소유 또는 자기소유의 토대로서 노동을 주체성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노동의 인간학이 발전하는 데 기여한 종교이념적인 토대였다.

먼저 노동과학은 노동하는 신체의 과학을 발전시킨다. 이 과정에서 노동하는 신체와 주체성을 분리하고, 노동을 신체의 에너지 지출로 정의함으로써 노동의 인간학을 폐기한다. 경영과학은 조직혁명을 통해 속도 경제의 이행 조건을 마련하는데 속도 경제가 부상하는 과정에서 노동의 인간학의 위기가 부상하고, 노동의 인간학의 한계라는 문제가 떠오른다. 사회운동은 시민으로서 노동자와 여성의 권리를 둘러싸고 저항과 타협을 시도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인간학의 모델, 존재론적 안전/차이와 시민 주체의 모델(들)과 그 관계라는 각도에서 접근함으로써 속도 경제의 부상이 근대적 주체성의 모델의 변화에 대해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상하는 신체의 한계(존재론적 안전)와 성적 경계(존재론적 차이) 문제가 인간의 고유성을 정의하는 인간학적/문화적 상징화의 억압/승인, 해체/전위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를 살피는 것이 핵심이다. 이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19세기적인



<그림 1> 속도 경제의 부상과 근대적 주체성의 상호작용

일반화되기 때문이다. 대공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타격을 덜 받은 것은 속도 경제로의 이행이 더디서 산업과 기업 부문 간의 격차가 덜했고, 재정 및 통화정책의 정치적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금융자본의 우위를 보장하는) 금본위제에서 더 일찍 탈출하였기 때문이다 (Dumenil and Levy, 1995). 오늘날 이 문제는 20세기 속도 경제 모델의 엔트로피 속에서 발생하는 실물경제와 금융위기의 상호작용이 세계경제 수준에서의 격차/경쟁과 금융세계화가 초래한 위기의 상호작용이라는 형태로 일어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고되어야 한다.

규모 경제에서 20세기의 속도 경제로 옮겨가는 과정은 노동을 자기소유의 토대로 간주하는 노동의 인간학의 위기와 한계가 나타나고, 노동의 인간학으로 제한될 수 없는 인간학과 주체성의 모델(들)을 어떻게 사고하고 결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떠오른 시기였다.

이 문제에 대한 탐구는 근대적 주체성 모델에 대한 인간학적 비판과 존재론적 접근 모두를 요구하는 것이다. 노동과학의 열역학적인 신체관은 신체의 노동과 노동하는 신체의 한계라는 개념을 발전시킴으로써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 개념의 변화는 인간학적 신체를 해체하고, 근대적인 노동의 인간학과 단절하는 것이었다. 경영과학은 조직혁명을 통해 신체의 한계 자체를 전환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의 인간학의 위기가 일반화된다. 사회운동은 신체의 한계와 함께 신체의 경계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시민의 권리와 연계시킨다. 하지만 근대적 주체성의 인간학적, 존재론적 모델의 한계를 사고하고, 인간학적, 존재론적 권리를 전환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먼저, 19세기까지의 지배 담론인 노동윤리를 대체하며 등장한 노동과학 그리고 속도 경제를 발전시킨 미국의 경영과학을 통합적으로 비교한다. 통합비교는 두 대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대상의 시간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관계의 형성과 그 결과에 주목하는 방식이다(Silver, 2005: 58-64). 단순한 비교가 비교 대상을 고립된 실체로 간주한다면 통합비교는 비교 대상 간의 관계형성과 그 동학을 중시한다. 이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속도 경제의 부상에 저항하기도 하고 적응하기도 한 사회운동이 노동과학 및 경영과학과 어떻게 상호작용했고,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그 함의를 살피고자 한다.

2. 유럽의 노동과학: 신체의 한계와 노동의 인간학

1) 노동과학의 부상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노동문제는 사회 현대화 문제의 핵심에 놓이게 된다. 유럽에서 1848년 혁명(과 1871년 파리코뮌)을 거치며 노동문제는 사회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 즉 사회 문제의 전면으로 부상한다 (Donzelot, 2005: 15-108; Doran, 2004). 노동과학으로 모아지는 흐름은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노동과학은 노동문제의 정치사회적 해결보다는 기술공학적 해결을 지향한다. 이 점에서 노동과학은 프랑스 혁명 이후 발전한 정치적 공화주의보다는 기술관료 공화주의와 만난다. 노동과학의 기술공학적 노동 모델은 노동윤리 담론의 도덕적 노동 모델과 대립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19세기에는 정치적 공화주의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응축하며 근대 정치의 전개와 전환에 정박점을 제공한 노동의 인간학과도 쟁점을 형성하며 노동문제의 전환을 추구한다.

정치사회적 격변이 노동문제의 사회적 부상과 해결을 강제하는 상황에서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기계화된 노동의 진전은 이미 노동윤리와 결합된 노동에 대한 이 이해에 변화를 낳기 시작한다. 노동과학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발전했는데, 19세기 중엽 이후 근대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의 발전은 노동문제를 전환하고자 한 노동과학의 탄생에 직접적으로 학문적인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중반부터 발전한 열에너지 물리학인 열역학의 새로운 전개(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가 그것이다.

노동과학이 열역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19세기에 특별한 일은 아니다. 19세기 후반 열역학의 새로운 전개는 뉴턴의 물리학이 근대 철학을 비롯하여 근대과학의 파라미터 역할을 했듯이,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을 매개하며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에 걸친 지성사에 새로운 파라미터를 제공하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전역학과 구별되는 동역학의 전개에 기여한다. 수학과 물리학에 이어 19세기 후반에서 세기 전환기에 부상한 역사과학(K. Marx)과 정신분석(S. Freud)의 동역학 모델의 발전은

이러한 영향 없이 설명하기 어렵다. 마르크스가 노동을 노동력의 사용으로 정의할 때 노동'력'(labor power) 개념은 에너지 물리학의 영향 속에 있다 (Rabinbach, 1990: 72-81). 정신분석에서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동역학을 설명하고자 제시한 욕동(Trieb), 리비도(Libido), 성적 욕망의 에너지 모델 [그밖에 침강된 무의식(의 존재, 에너지 보존 법칙)과 타나토스(Tanatos, 죽음의 욕동, 엔트로피 경향) 개념의 착상 등은 이러한 영향의 가장 뚜렷한 예에 속한다(Rosenberg, 1993; Irigaray, 1989: 20-21)²⁾.

하지만 열역학만으로 노동과학의 고유성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노동과학의 노동 개념은 에너지 물리학의 영향—물리학적 일(work) 개념 (Feynman, 2004b: chapters. 13-14)—을 받지만 노동과학의 연구 대상은 정작은 생리학적 노동이다. 물리학과 생리학을 결합하려는 이러한 시도에서, 이론적 정합성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하고, 인간학적 노동의 고유성은 사상된다.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의 제자이자 현대 물리학의 거두인 파인만은 물리학적 일, 생리학적 노동, 인간의 노동을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동과학은 인간학적 노동의 고유성을 다룰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19세기에 엔트로피를 열적 죽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미친 문화사(망탈리테)적인 영향은 컸다. 열적 죽음으로서 엔트로피는 열역학 제1법칙(에너지 보존 법칙)이 낳은 현대에 대한 낙관주의를 상쇄하며 현대의 쇠퇴와 만성적인 무질서의 필연성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Rabinbach, 1990: 3-4). 오늘날에는 리프킨(Jeremy Rifkin)이 이러한 견해를 대변한다. 파인만(Feynman, 2004a: 46-10, 46-11)이나 펜로즈(Penrose, 1989: 466-532) 이러한 이해에 반대한다. 엔트로피 법칙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 및 우주론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둘러싼 진행 중인 논쟁과 연결되어 있다. 엔트로피를 우주의 열적 죽음으로 이해하는 데 대한 최초의 비판은 엔젤스로부터 나왔다. 마르크스와 엔젤스를 자연과학의 바깥에서 열역학을 연구하고 자본주의 동역학 연구(경향과 반경향)에 적용한 19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상가로 평가된다. 카오스 이론과 비평형 열역학으로 잘 알려진 노벨상 수상자 일리아 프리고기네(I. Prigogine)는 에너지이론(열역학), 세포 생물학,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마르크스와 엔젤스의 이해를 높이 평가한다(Foster and Burkett, 2008). 경제학의 일반균형이론과 고전 열역학의 동역학 모델의 차이도 균형 개념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 연구되고 있다 (Smith and Foley, 2005). 최근 생물학에서 유기체의 진화를 설명하는 체계동역학으로서 엔트로피에 대한 연구(DePew and Weber, 1995: 459-478)는 거시적 진화의 역사동역학에 대한 새로운 시도인데, 미시적 동작 연구를 통해 신체의 엔트로피를 측정하려 한 노동과학과 구별된다.

노동과학의 발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사람은 머이브리지(E. Muybridge)와 마리(E. J. Marey)이다. 머이브리지는 1870년대 후반 연속 사진술(chronophotography)을 고안했고, 마리는 1882년에 시차사진술(chronomatography)을 발명했다. 연속사진술이나 크로마토그래프의 발명은 영화의 등장에도 공헌했지만, 머이브리지나 마리 자신은 인간과 동물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데 열정을 쏟았다. 달리는 말, 날아가는 새, 사람의 일상 동작과 노동하는 신체의 움직임까지 측정할 새로운 기술과 실험은 노동하는 신체의 동작과 리듬을 연구하는 노동과학이 부상하는 데 초석을 놓았다(Kern, 2004: 66-71, 277-300; Rabinbach, 1990: 84-119).

그렇다면 노동과학이 목표로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사회에 만연한 근대 노동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게으름, 나태, 결근, 이직, 부랑 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노동과학이 19세기 노동윤리 담론과 결별하는 길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산물이다. 노동윤리와 달리 노동에 대한 저항의 원인이 피로(fatigue)에 있다고 보고, 피로 개념을 에너지 모델에 따라 다시 정의하면서 문제 해결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노동윤리 담론의 전도는 불가피해진다. 게으름은 노력 최소화의 원인이 아니라 만성적인 피로의 효과이다. 게으름이 아니라 모더니티가 초래한 긴장과 압력이 신체와 정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킨 결과 만연된 피로가 근대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 된다(Rabinbach, 1986: 43, 1990: 1-19 및 1992).

따라서 이제 피로는 “노동하는 신체의 한계이자 사회가 미래의 노동능력을 위협하지 않고서는 침범할 수 없는 임계점(강조는 인용자)”이 된다. 피로는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영적인 노고(勞苦)를 가리키지 않았고, 19세기 후반에 고도로 영화된 “텔리키트한 괴물”로서 문학적 권태(ennui)나 우울의 정조(spleen) 같은 시학적인 울림도 더 이상 갖지 않는다. 노동과학 속에서 피로는,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처럼 모더니티와 고도 자본주의의 영도(零度)에 도달하는 급진적으로 “내성(內省)화된 주체”성과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엔트로피에 반작용하는 “최소노력의 법칙”에 따라서 “피로 없는 신체”와 “최적 생산성”이 양립하는 “사회적 현대화”의 필요

성을 지시하는 것이 된다(Rabinbach, 1990: 19-44, 146-178, 258).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노동문제를 전환하려 한 노동과학의 사회적 현대화 노력은 노동의 인간학의 지양이라는 문제와 맞닥뜨린다.

푸코(Foucault, 2003)가 혼육되고 구성된 신체에서 근대적 주체성의 탄생이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노동과학에서 엔트로피적인 신체의 노동이라는 문제설정은 근대적 주체성의 위기 문제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로의 전환기에 어떻게 출현하고 전환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³⁾.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과학이 노동윤리에서 비롯되어 노동을 근대적인 자기소유의 토대로 확립한 노동의 인간학(들)과 맺는 갈등적인 관계이다. 20세기로의 전환기에 노동과학의 부상이 노동의 인간학과 맺는 갈등적인 관계와 쟁점 형성은 노동과학이 추구한 사회적 현대화의 방향과 성격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이다.

2) 노동과학과 주체 위치: 사회적 현대화와 공화주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엽의 세기 전환기에 노동의 인간학의 위기 문제는 이미 당대에 사회학자 베버(M. Weber)의 눈에 포착된다. 베버는 세기 전환기에 이미 진행된 노동윤리의 해체를 직접 목도하며 근대적 주체성의 인간학적 모델이 종언을 고했는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1904년에 미국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마무리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는 노동윤리가 순수한 공리주의로 “해체”되었으며, 이 때문에 “문화발전의 최후의 인간”이 “도래”할지 모른다는 비관적인 위기의식과 전망이 제시된다(Weber, 2004: 145-146).

서양의 역사에서 노동윤리는 얼마나, 어떻게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였는

3) 푸코의 사목적 규율 권력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과학에서도 신체의 동작과 리듬은 해체와 재구성의 대상이다. 하지만 사목적인 규율 또는 담론의 효과로 생산된 몸이 지식·권력이 교차하고 작동하는 공간으로 주체성이 기입되고 구성론적 몸이라고 한다면, 노동과학의 몸은 엔트로피적, 존재론적 신체 모델에 충실하기 위해 노동자의 주체성(주관성)과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며, 그럴 때 “피로 없는 신체(Rabinbach, 1990: 9)”라는 이상이 달성되는 몸이다. 푸코에 충실하게 테일러주의와 몸의 관계를 개괄한 것으로는 Bahnisch(2000)가 있다.

가, 종교적인 가치를 갖는 노동윤리의 부상이 세속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어떠한 위상을 갖는가는 논쟁적인 연구주제들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베버에 대한 비판도 함축하는데, 삶의 양식으로서 노동윤리는 유럽의 고안물이며, 미국에서 중간계급의 고안물인 노동윤리가 노동자들에게는 가치나 소명이라기보다는 도구적인 성격을 띠었다는 지적도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노동의 인간학의 사상적 뿌리에 종교적 노동윤리가 있다는 점은 부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노동윤리는 19세기 말에서 1920년대 사이에 유럽과 미국에서 현대적 삶과 조직이 의존할 수 있는 주요한 이념으로서는 점차 그리고 완전히 힘을 잃었다는 데에도 대체로 합의가 존재한다(Bauman, 1998: 20-21; Giddens, 2004; Rodgers, 1974: 153-181).

노동윤리의 쇠퇴 시기나 원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 않은데, 베버가 내재적인 접근을 대변한다면, 다니엘 벨(Bell, 1990)은 외재적인 접근을 대변한다. 베버가 노동 자체의 변화에서 노동윤리 쇠퇴의 결정적인 계기를 발견했다면, 벨은 노동 바깥, 즉 1920년대 대중소비문화의 발전에서 금융주의 노동윤리의 쇠퇴 원인을 발견한다. 그렇지만 벨은 노동윤리의 쇠퇴를 개탄하는 베버의 태도를 계승한다는 점에서는 베버와 다르지 않다.

베버가 숨기지 않고 있는 근대적 주체성 위기의 문화적 불안은 그 자신의 표현대로 아직 객관적인 “역사적 설명”이라기보다는 “가치판단”에 속하는 것(Weber, 2004: 146)인데, 노동윤리는 그 만큼 베버 스스로 거리를 두기 어려운 가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최후의 인간”에 대한 베버의 토픽은 기실 니체의 영향이 스민 것이다. 하지만 베버 자신은 기독교 노동윤리를 노예의 도덕으로 간주한 니체(Nietzsche, 1982)와 달리 소명으로서 노동이라는 윤리에 대해 회고적인 향수의 색조를 짙게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베버의 접근 방식은 노동윤리를 해체하고, 노동의 인간학 없는 노동을 개념화하고 일반화하고자 한 노동과학과 갈등적인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실제 베버는 1910년(대)에 [“노동의 기계적 화석화”에 대해 “적응”을 추구하는] 노동과학의 심리학 분파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제시한 바 있다

(Rabinbach, 1986: 497). (큰 타자로서) 신의 영광에 봉사하는 노동이라는 베버의 테제는 “자연 상태”의 비합리적인 충동에서 비롯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자기 통제를 강조한다. 이러한 자기 통제와 결합된 세속적인 노동과 노동윤리는 구원의 실패라는 종교적인 불안감을 진정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었다(Weber, 2004:87-93, 125-126). 그렇지만 19세기 후반의 불안은 이미 종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근대화와 그 가속화, 즉 모던 템포(Modern Tempo)가 낳은 것이다. 이 시기의 불안과 정조는 시시로 근대의 빠른 변화와 템포가 낳는 피로, 신경쇠약, 권태나 염세와 결부되어 나타났다. 노동과학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데 노동윤리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베버는 자연의 상태(충동, 비합리성)와 시민의 상태(합리적 자기통제, 즉 자기소유)를 구별하지만, 노동과학의 자연은 이러한 자연이 아니다. 노동과학에서 불합리는 오히려 자연(신체)의 한계를 초월하고자 할 때 나타난다. 노동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에너지의 저장소인 신체의 운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신체의 자연적(이라고 가정된, 그리고 발견해야 할) 한계를 측정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초월할 때 발생하는 “피로 없는 신체”의 노동을 달성하는 것이 노동과학의 이상이였다. 이러한 사고 속에서 최소노력은 노동윤리 이데올로기에서처럼 사회적 병리인 게으름이 아니라 발견해야 할 법칙이다. 노동과학은 피로 없는 신체와 생산의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최소 노력의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노동 착취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Rabinbach, 1990: 172, 1992: 186-187).

머이브리지의 연속 사진술이나 마리의 시차사진술은 이러한 최소 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 노동하는 신체의 동작과 리듬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실증적인 연구의 바탕이 된다. 노동과학은 1890년대쯤이면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 자리를 잡는다. 이 시기 각국에서 노동하는 신체의 한계 문제, 즉 피로 문제가 동일한 비중과 위상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19세기 실증주의의의 정신 속에서 “과학자들은 노동의 수행성, 정신적 피로, 노동자의 식단과 영양 상태에 이르기까지 피로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 철저한

실증적인 조사”를 수행했다. “피로에 대한 법적, 통계적, 의학적 연구는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접근은 “노동의 이미지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Rabinbach, 1986, 1990: 179-205). 베버는 이러한 변화의 정치사회적 함축을 예민하게 느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서양에서 프로테스탄트의 노동 개념은 고대적 노동 관념에 매우 급진적인 혁신을 도입한다. 서양의 고대에서 노동은 퇴화와 고통(ponos, pain)을 뜻하는 것이었지만, 기독교(프로테스탄티즘)와 함께 영적인 것이 된다. 이미 사도 바울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지만 아직 성과 속의 경계를 바꾸는 관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노동 개념은 세속적인 일상의 삶과 영적인 삶의 장벽을 무너뜨림으로써 시민과 배제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던 고대적인 노동 개념(노예의 노동)에 급진적인 혁신을 도입했다(Kumar, 1988: 229-231).

기독교는 “구약에서는 저주로 여겨졌던 노동”을 “시민적 질서”의 중심으로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Horkheimer and Adorno, 1995: 315). 기독교의 종교 이념과 결합된 다양한 사회운동(천년 왕국운동, 영국의 청교도 혁명의 대중적 기반이 되었던 수평파 Levellers와 수평파에서 분리한 농민 기독교 공산주의 Diggers)은 이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Cohn, 1993; MacPherson, 1991). 프로테스탄트의 뿌리는 중세 유럽의 천년왕국운동역사에 연결되어 있다. 명예혁명에 참여한 로크의 자연권 사상(Locke, 1996)에서 본격적으로 철학화되어⁴⁾, 고전경제학이나 근대 정치사회사상으로 발

4) “자연의 사물들은 공유로 주어지지만, 인간은 (그 자신의 주인으로서, 곧 그 자신의 인신, 행위 및 노동의 소유주로서) 그 자신 안에 소유권의 주된 기초가 되는 것을 지니고 있다 (Locke, 1996: 49 ; pp. 34-35 및 41도 참조, 괄호는 로크의 것이고, 꺾쇠는 인용자의 것이다).” 로크 자신이 “신체의 노동(p.35)”이라는 관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과학의 신체 개념이 아니라 “그 자신 안에서 [지니고 있는] 소유권의 주된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인신(人身)적인 신체의 노동이다. 로크에게서 노동은 재산의 소유와 자기소유를 매개하고 동일화하는 위치를 차지한다. 청교도 혁명의 수평파/디거스의 자연권/인민주권 사상이 명예혁명의 로크에게 미친 영향과 양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태욱(1994)과 MacPherson(1991)을 참조할 수 있다. 서양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상징적/문화적) 정의를 다루는 철학적 인간학(philisophical anthropology)의 계보에 대해서는 <http://www.britannica.com/>

전하는 근대적 주체성의 모델로서 노동의 인간학의 발전(Rundell, 1992)은 이러한 종교 이념의 변화와 사회운동의 결합이 가져온 급진적 혁신의 역사적 효과를 빼 놓고 이해하기 어렵다.

노동과학의 발전에 디딤돌을 놓은 19세기의 실증주의는 신교적인 노동 윤리나 노동의 인간학과 달리 주체성을 주관적인 것, 즉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노동과학에서 신체의 노동 또는 노동하는 신체에서 인간의 주체성은 주관적인 것으로 배제되어야 한다(Rabinbach, 1990: 43-44). 이러한 관념에서는 근대적 개인의 자기소유(주체화)의 기초로 승화되는(신체의) 노동이라는 관념(Locke, 1996)이 설자리는 없다(각주 5 참조). 기실 노동과학이 부정하는 노동윤리에서 육체와 주체성의 관계는 불구적인 것이다. 아도르노(Horkheimer and Adorno, 1995: 315-322)가 지적하듯이, 육체가 열등한 것으로 폄하될수록 그것은 통제되고 영적인 함축을 갖는 것으로 승화되어야 했고, 노동은 이러한 승화—육체와 영혼의 위계적 통일성—를 매개하는 역할을 위임받는다. 노동 착취의 현실은 점차 노동이 구원의 직접적인 입장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을 고취하는 노동윤리 이데올로기는 (이제) (노동하는) 육체에 대한 잔혹한 지배를 강화할 뿐이다.

노동과학이 개입한 현실은 이러한 잔혹성의 결과, 즉 피로의 만연이다. 그렇지만 노동과학이 추구하는 사회적 현대화는 “인간학적 신체 anthromorphic body의 [실증주의적인 분해와 측정에 의한] 해체”(Rabinbach, 1990: 87)”에 기초하여 인간학적인 고유성이 없는 신체의 에너지 지출과 그 임계점 또는 한계를 규명하고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학적 고유성이 배제된 신체와 신체의 노동에 대해 노동자는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인가? 근대적 주체성의 모델과 분리된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는 여전히 주체로 표상될 수 있는가?

EBchecked/topic/456743/philosophical-anthropology를 참조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의 anthropology는 ‘인류학’이 아니라 인간학 또는 인간론(“philosophy of man”)이다. 인류학자 가운데 철학적 인간학의 범주에 속하는 대표자는 구조주의 철학을 부상시킨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strauss)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대화는 무엇을 함축하는가? 이와 관련해서 20세기 초반 (프랑스의) 노동과학 연구에서 “의료[생리학]-심리학적 담론”과 “사법적 담론”이 나란히 부상했다(Donzelot, 1991: 257)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 이 문제는 노동의 인간학 없는 신체의 노동을 일반화하며 “유동적 유기체로서 인간 신체의 한계를 조작하고 탐색하는 모든 종류의 과학”의 “수립”과 시도를 “인간으로서 노동자” 또는 “신체적 주체”의 “위치성”, 즉 주체 위치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Harvey, 2000: 149, 151-153).

노동과학에서 두 담론의 분할 정립은 노동과학에 의한 사회적 현대화가 “노동문제의 [영역적] 분할”을 어떻게 “제도화”하는 것인지, 이러한 제도화가 노동자의 주체 위치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권리들의 주체로서 노동자[사법적 접근과 과학(의료-심리학)적 접근의 대상으로서 노동 사이의 분리(괄호는 인용자)]의 제도화가 그것이다. 과학의 대상으로서 노동의 구성에서 노동자는 하나의 인간적인 “요소(factor)”로 환원된다. 이러한 분리의 제도화 속에서 생산은 이제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분리되고, 사회적인 것은 경제[생산]의 바깥에 있게 된다⁶⁾. 경제는 생산성을 위한 힘들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배—즉 에너지의 경제—로 정의되고, 사회적인 것은 계약과 권리에 관계한다. 경제의 영역에 속하는 신체의 노동에서 주체성을 분리하여 ‘노동의 인간학’ 없는 노동을 정당화하

5) 동즐로(Jaque Donzelot)는 프랑스에서 노동과학이 1920년대에 부상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세계 전환기에는 자리를 잡았다(Rabinbach, 1986, 1990). 1910년대 초반 유럽에서 테일러주의와 대립한다(4장, Jules Amar의 사례 참조). 1920년대는 “인간적 요소 human factor(Donzelot, 1991: 255)”를 다루는 노동과학이 과학적 관리의 하위 파트너가 된 시기이다. 노동과학 연구는 식민지 조선에도 1920년대 초반에 도입되었다. 1924년에 설립된 조선의학회(朝鮮醫學會)에서 「勞動科學研究」(1924-?)를 발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에 1924년 1권부터 1939년 16권 1호까지 일부가 보관되어 있다(<http://library.snu.ac.kr>).

6)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분리를 극복하고자 사회적 배태성 개념의 역사(Karl Polanyi, Talcott Parsons, Mark Granovetter)와 그 딜레마에 대한 검토로는 Krippner(2001)가 어느 정도 유용하다. 그녀는 여전히 배태성의 지평을 넘어서지 못하는 데 사회적 관계의 구조로서 경제라는 개념이 다듬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한에서 경제 모델과 주체성 모델의 관계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진전시키기는 어렵다.

고, 주체성의 영역을 경제 영역의 바깥에 사법적으로 위치 짓는 것이다 (Donzelot, 1991: 255-257).

이러한 주체 위치 설정은 고용계약의 계약적 요소를 불안정하게 하는 모순적인 것이다. 고용계약을 맺은 사법적인 주체로서 노동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노동을 수행하는 생산과정에서 생산의 요소로서 노동자가 주체성과 분리된 생산적 신체 또는 부분 신체로 환원되거나 분해되어 되기 때문이다(Donzelot, 1991: 23-254; Deleule, 1992: 208). 노동과정에서 주체성을 가질 수 없는 노동자는 19세기에 프랑스의 정치적 공화주의의 핵심적 쟁점을 구성한 노동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 즉 노동력의 사용에 대한 권리의 주체로서 노동자라는 위상을 갖기 어렵다(Donzelot, 2005: 15-43). 노동과학에서 노동자는 노동력 사용에 대해 개입할 수 없으며, 노동문제는 노동자 건강(산업재해) 문제를 포함하여 생산성 증가와 양립하는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노동—피로로 현상하는 노동하는 신체의 엔트로피(노동력 재생산 위기)에 대한 반작용—의 문제, 즉 노동력의 지속적인 지출 가능성 보호 문제로 전환된다.

노동자의 권리는 생산적인 힘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배의 영역으로서 경제와 분리된 사회적 것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 된다. 노동과학의 심리학적 접근은 이러한 주체성의 개입을 배제하고자 하면서 노동력 사용의 기계화와 기능화에 노동자를 어떻게 “적용”시키는 것이 노동의 만족도와 노동자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길인지를 조사하는 역설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Deleule, 1992: 211, 214, 221-224). 노동과학이 추구한 공화주의는 노동의 인간학 없는 공화주의이자 노동문제에 대한 산업공학적인 해(解)를 추구하는 공화주의라는 점에서 기술관료적 공화주의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미국의 경영과학:

미국적 템포, 신체의 한계의 전화와 주체 위치

1) 속도 경제의 부상: 신체의 엔트로피 대(對) 체계의 엔트로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대서양 양안의 관계가 일방적인 것은 아니었다. 세기 전환기 유럽과 미국 사이에는 “지적, 사상적, 문화적, 정책적”으로 활발한 “교류”가 존재했다(박진빈, 2006: 18-21). 미국의 경영과학—과학적 관리로서 테일러주의—도 1910년대까지 유럽에 널리 도입되었고, 그보다 먼저 유럽의 노동과학이 미국에 소개되었다. 유럽의 노동과학과 미국의 경영과학(scientific management)인 테일러주의는 서로 작용하며 영향을 미쳤다. 과학적 관리는 노동의 “도덕 모델”이 아니라 ‘과학’ 모델—노동과학의 경우는 “의학모델”, 즉 “생물학”, “생리학”, “심리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노동과학과 같다(Rabinbach, 1986: 476-477). 과학적 관리로 알려진 편인 동작 연구와 피로 연구는 유럽 노동과학이 발전시켰고, 과학적 관리가 일정하게 수용한 것이다.

테일러는 생산성 증가와 피로 없는 노동을 양립시키기 위하여 산출 감소 없이 기준 노동시간을 줄이려고 했던 유럽 피로 연구 성과를 잘 알았다. 유럽에서 노동과학은 노동시간 단축을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를 제공한다. 1910년대 전후부터 미국의 노동시간 단축 운동도 유럽의 노동과학 연구 성과를 폭넓게 흡수하며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4장). 그렇다면 과학적 관리는 노동과학에 의한 인간학적 신체의 해체와 노동하는 신체의 한계(엔트로피) 모델에 대해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가? 과학적 관리가 노동과학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수용했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테일러주의와 노동과학 사이에는 애초에 갈등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먼저, 노동과학과 테일러주의가 지향하는 기본 목표가 다르다. 노동과학은 노동하는 신체에서 출발하여 생산성 증가와 피로 없는 노동이 최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최소 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과잉

노동과 신체의 에너지 지출의 한계를 규제하려고 하였다. 테일러주의의 기본 목표의 하나는 달성 가능한 최대 생산성을 “공정한 하루 노동”으로 재정 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에 의한 산출량 제한이라는 노동자의 집합적 결정의 토대를 해체하는 것이었다(Aglietta, 1994: 140-147). 테일러주의는 1910년대에 유럽에 도입되기 시작하는데, 노동과학자들이 테일러주의를 노동과학의 근본 전제, 즉 생산 속도 증가와 노동에 대한 만족을 연계하여 사회적 정의와 행복의 현대화를 이루려는 노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한 것은 이 때문이다. 테일러주의는 “조직된 과로와 소모의 조직이자 야만적인 노동체계”이며, “필연적”으로 따르는 노동자의 “불행”을 노동 그 자체와 무관한 물질적인 급부(성과급, 인센티브제도)로 보상하는 것이었다(Rabinbach, 1990: 241).

다음으로, 테일러주의와 노동과학의 차이와 같등은 노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관련된다. 노동과학에서 노동은 신체의 노동이며, 따라서 생리적 과정이다. 과학적 관리는 기본적으로 노동과정을 조직하는 경영과학이며, 따라서 노동은 조직적 과정이다. 노동과학에서 노동은 조직과 분리된 실체로서 신체의 일이다. 신체의 노동은 신체에 저장된 에너지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근대적 템포가 야기한 ‘신체의 엔트로피’ 경향에 반작용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테일러주의가 반작용하고자 한 것은 무엇보다도 노동을 조직하는 19세기적 체계(경제 모델)의 엔트로피 경향이다.

테일러주의의 모반은 19세기 말 미국의 대불황(1873-1896)이다 (Montgomery, 1988: 4). 과학적 관리로서 테일러주의는 대불황이라는 체계의 엔트로피에 반작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의 조직 원리 자체의 변화를 꾀하며 발전한다. 테일러주의가 실현하고자 한 것이 노동과학처럼 노동하는 ‘개별 신체(에 의존하는 바의) 최적 생산성의 체현(體現)’이 아니라 ‘체계가 달성 가능한 최대 생산성의 조직’인 것이다. 노동과학이 실현하고자 하는 최적 생산성은 그것이 최대 생산성에 미달하는 것일 때 부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과학의 성과를 수용하는 테일러주의 속에서 노동하

는 신체의 엔트로피 모델은 불안정하고, 모순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테일러주의는 노동시간 내의 빈틈(여유시간)을 최대한 제거하여 최대 생산속도를 조직하고자 하며, 따라서 신체의 피로 없이 달성 가능한 최적 생산성이라는 개념과 양립하기 어렵다. 노동시간 내 피로회복 시간인 여유시간을 최대한 제거하며 생산성을 조직하는 한 피로는 불가피하다. 노동력의 사용 시간과 노동력의 재생산 시간은 최대한 분리되어야 한다(Aglietta, 1994: 140-147). 테일러주의는, 신체의 엔트로피 모델을 온전히 폐기했다 기보다는, 노동시간 내에서 신체의 한계를 전환하면서, 여유시간이 아니라 노동시간 바깥의 여가를 통해 피로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재할당은 노동하는 신체의 한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적합한 것인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과 여가의 재분배라는 접근이 이미 노동과학에 의해 시도된 것이라면 테일러주의의 그것과 노동과학의 그것은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노동과학과 테일러주의는 공히 생산성 증가와 노동시간 단축을 결합하고 있지만 양자의 생산성 노동시간 단축론의 논리적인 구조가 같은 것도 아니다. 이 점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노동하는 신체의 엔트로피 모델과 테일러주의가 맺은 고유한 문제를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노동과학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하는 신체의 엔트로피 경향(피로 문제의 만연)에 반작용하고자 했다. 테일러주의는 이러한 연구를 잘 알았지만, 생산성 향성의 성과를 임금(성과급)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분배하는 논리를 우선시했다. 따라서 테일러주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과정에서 과로를 조직—여유시간 감소와 최대 생산성—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자 여가를 통해 피로를 회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주의적인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과 여가의 재분배는 노동하는 신체의 한계(신체의 엔트로피 모델)와 구조적으로 끊임없이 갈등하는 관계를 맺는다.

이 점은 1910년대가 되기 전에 노동과학에 의해 명확히 인지된다. 노동과학은 노동시간 단축이 산업재해(즉 노동자의 존재론적 안전과 건강) 문제 해결에 유용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노동시간 단축을 옹호한다. 그렇지만

노동과학 연구는 노동시간 단축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했다. 1907년 위생학과 인구학 대회에 제시된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는 “노동시간의 절대 길이가 아니라 시간당 일율(work-time ratio),” 즉 “노동의 속도와 템포, 시간과 동작에 대한 통제”였다. 사용자가 “단축된 노동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기계장치와 작업의 속도”를 증가시켜 단위 시간에 “지출된 에너지”의 크기인 “노동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증가한 것이다(Rabinbach, 1990: 233-34).

결국 노동을 어떻게 조직하느냐가 핵심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테일러주의, 그리고 테일러주의 원리를 실현한 속도 경계가 직면하게 될 문제였다. 기계장치와 작업속도에 대한 경영의 통제는 계급중립적인 신체의 과학을 자임하는 노동과학이 자신의 언어를 갖지 못한 대상이자 경영과학으로서 테일러주의(과학적 관리)가 자신의 과제로 자임한 것이다. 노동하는 신체의 엔트로피 모델과 테일러주의의 결합은 모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2) 속도경제와 주체 위치: 시민 노동자와 사회적 현대

(1) 19세기와의 단절과 시민 노동자

노동과학이 주로 실험실에서 발전했다면, 테일러주의는 현장에서 발전한다. 이러한 차이는 노동자의 주체 위치의 역사적 변화와 관련해 매우 중요하다. 실험실에 있는 노동과학은 노동자에게 덜 위협적이었고, 노동시간 단축 의제로 환영받기도 한다. 테일러주의는 노동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 즉 노동자의 주체 위치를 실질적으로 위협했으며,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을 받는다. 세기 전환기에 비약적으로 조직화하며 발전한 미국 노동자 운동에서 노동에 대한 노동자의 관계는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특히 파업의 연대가 된 1910년대에 이 문제는 임금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일차대전 이후 테일러주의와 속도경제가 자리를 잡고 1910년대 노동자 운동의 파고가 가라앉으면서 1920년대에는 노동자 공화주의의 주체화 형태로서 “시민 노동자(citizen worker)” 모델의 추락이 일반화된다(Montgomery, 1988, 1993). 테일러주의가 태동, 확산되는 과정은 시민

노동자 모델을 추구한 노동자 공화주의의 새로운 형태가 발전, 추락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테일러주의의 부상과 임금노동에 토대를 둔 노동자 공화주의의 새로운 발전은 공통의 구조적 모반을 가지고 있는데 1870년대 이후 미국의 대불황이 그것이다. 19세기 초반에 노동자 공화주의는 미국 혁명과 제퍼슨적 공화주의 전통에 바탕을 두면서 공화주의적 시민으로서의 노동자의 권리를 추구하며 발전한다. 19세기 초반 영국보다 산업혁명이 지체되었던 시기에 노동자 공화주의는 일자리에 대한 관습적 권리와 독립적 장인의 이상을 보존하기 위한 투쟁이나 미국 혁명의 영향 속에서 시민으로서 온전한 정치 참여를 방해하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항 속에서 발전했다. 하지만 제퍼슨주의 시대에 임금노동은 독립된 생산자가 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치며 벗어나야 할 노예적인 것으로 여겨졌다는 점에서 노동자 공화주의의 토대는 불안정한 것이었다. 19세기 후반 남북전쟁 이후 산업화가 진전되고 완성되면서 임노동자를 “임금노예”로 간주하는 제퍼슨적 공화주의나 장인적 전통에 대한 기억이 임금노동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준거가 되기도 했지만 이제 임금노동은 일상화되며 적응과 도전의 이중적인 대상이 된다⁷⁾. 1870년대 이후 노동자 공화주의는 대불황기 노동 조건이 불안전해지는 상황에서 임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시민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추구하는 권리로서 노동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를 집단적으로 추구하며 발전한다 (Kessler-Harris, 1982: 182; Roediger and Foner, 1989: 2-3; Montgomery, 1990). 테일러주의가 새롭게 발전한 노동자 공화주의의 시

7) 이 점은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Edward P. Thompson)’과 미국의 경우를 비교할 때 흥미로운 부분 가운데 하나다. 미국에서도 19세기 후반까지 장인적 노동의 관념과 그 전통의 잔존이 임금노동에 대한 비판의 준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장인적 전통의 경험과 기억이 19세기 후반 하루가 다르게 서부로 뻗어가며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의 노동자들에게 공통의 경험과 기억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Davis, 1994, 1-1) 참조). 남북전쟁 참전 노동자 사이에 발전한 유대감과 전국적인 네트워크, 산업화의 완성과 임금노동의 보편화, 대불황기 노동조건을 둘러싼 새로운 쟁점 부상 등이 독립적 소생산자로서 장인노동의 이상화로 회귀할 수 없는 단절들을 낳았다. 19세기 후반에 발전한 노동자 공화주의는 무엇보다도 숙련 노동자를 정점으로 한 집합적 노동(결합 노동력)에 기반을 둔 것이다.

민 노동자 모델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노동력의 사용을 임노동자가 집합적으로 통제하는 산출량 제한은 19세기 말 대불황기에 갈등의 화염 속에서 주조되며 고안된 전통이다(각주 7 참조). 불황기 동안 사용자들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남은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강요하며 노동강도를 최대화하는 생산 전략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산출량 통제는 이러한 전략에 대항하면서 숙련 노동자를 정점으로 하는 노동자의 “자율성”과 “품위”를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집합적 노력이자 사용자와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노조에 의한 입법”이었다. 19세기 말 대불황과 이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방식 하에서 제한되지 않는 산출은 노동자에게 소득의 하락(기준 임금이나 성과급 삭감)과 고용불안을 뜻했다. 따라서 “이성적인 하루노동”을 집합적으로 결정하는 “통제 문화”는 노동자의 “이타적인 형제애”와 “교양 있는 지성”을 반영하는 연대적 윤리 규범의 핵심을 이룬다(Montgomery, 1988:17-22).

1886년 대불황기에 헤이마켓 사건으로 상징화되는 남녀 모두가 참여한 전국 총파업은 노동자 공화주의가 노동자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재구성하고자 하는가를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8시간의 노동, 8시간의 안식 그리고 8시간의 자율적 사용에 대한 요구와 욕망은 노동자 공화주의 시민의 관점에서 노동의 경험과 가족의 삶을 직조하는 사회적 리듬을 재구성하려는 것이었다. 이 요구는 이성적 하루 노동에 대한 권리, 노동자가 교양과 지성을 갖춘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여가에 대한 권리, 그리고 가정성의 재정지에 대한 관념을 반영하는 것이었다(Cross, 1986, 1990:84; Evans, 1998: 217-219). 이성적 하루 노동을 둘러싼 싸움의 사회정치적 성격은 1892년 카네기 철강공장 노동자 파업에 대한 사법부 판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펜실바니아 최고법정은 노동에 대한 노동자의 집합적 통제 투쟁을 시장이라는 금지된 정원을 침범하는 “가상의 권리”로 규정한다. 그것은 개인의 소유권과 계약 자유의 원리에 기초를 둔 (19세기적인) “공화정에 대한 반란”이 된다(Montgomery, 1988: 36-39, 1993: 157-162).

세기 전환기에 노동자 공화주의와 테일러주의의 대립은 19세기와 단절

하되, 어떻게 단절하느냐의 문제가 된다. 노동자 공화주의와 테일러주의는 노동윤리라는 19세기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단절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테일러주의는 노동자의 태업(일하는 시늉하기)을 비판했지만, 인간의 본성에 근거를 둔 “자연적인 태업”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노동자 연대와 윤리 규범, 인용자)에서 생기는 조직적 태업”, 결국 노동이 조직되는 원리와 형태를 문제 삼았다(Nyland, 1989: 102-103). 이러한 테일러주의의 도달점은 개으름에 대한 노동윤리적인 비판과 노동의 인간학을 동시에 비켜가면서 ‘노동의 조직’을 재편함으로써 속도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노동자의 상대적 자율성, 구상 노동과 실행 노동의 분리, 경영자 통제로의 집중⁸⁾—을 정의하는 것이었다. 노동자 공화주의가 노동에 대한 노동자의 관계에서 노동윤리 담론에 지배되지 않는 노동의 인간학을 실천하는 주체화 양식으로서 공화주의 시민 노동자 모델을 추구했다면, 테일러주의는 노동윤리 담론을 동원하지 않으면서 노동에 대한 노동자의 시민적 관계, 즉 노동의 인간학에 의존하는 시민 노동자 모델의 주체 위치의 토대를 허물고자 하였다.

(2) 경영과학, 노동과학과 주체 위치

노동에 대한 노동자의 시민적 관계, 즉 시민 노동자 모델의 토대로서 노동자의 주체 위치의 위기와 관련하여, 노동자들은 테일러주의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테일러주의에 대한 노동자의 두려움이 신체상의 극단적으로 폭력적인 변화인 “거세”로 재현된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테일러주의에 대한 저항은 1910년대에 최고조에 달하는데 1913년 테일러주의와 마주친 기계공들은 그 두려움을 이렇게 묘

8) 이 시기 지식 노동과 육체노동의 새로운 분할을 법인자본주의의 발전과 관련하기 다루기 위해서는 ‘공장’에만 시야를 가두어서는 안된다. 법인자본에 의해 통합된 과학·기술자 및 엔지니어(Noble, 1977)와 전문사무직 종사자(Zunz, 1990)의 형성과 발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새로운 지식 노동자가 (종종 유평파적이기도 했던) 테크노크라시 운동과 결합하여 발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Akin(1977)을 참조할 수 있고, 조직학명이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소유적 개인주의—및 그와 결합된 19세기 중간계급의 노동의 인간학—을 어떻게 지양하는가를 둘러싼 논의의 전형으로는 Whyte(1956)를 참고할 수 있다.

사하고 있다:

“카메라가 노동자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다.” “잘못된 동작”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동작을 사진으로 찍어서 노동자를 노동자가 관리하는 기계만큼이나 기계적인 속도[a stride that is as mechanical as a machine]로 몰아댄다. 테일러주의자들⁹⁾이 노동자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면, 노동자가 남자가 된다는 모든 생각을 “거세하게 cut out” 만들어서 아마도 더 큰 “효율성”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Livingston, 2001: 25-26에서 재인용, 괄호와 강조는 인용자).”

노동과학의 경우 이러한 격한 반응을 자아내지는 않았는데, 노동의 인간학의 폐기와 인간학적 신체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노동하는 신체의 한계, 즉 “존재론적 안전(Shilling, 2003: 251)”이라는 문제설정 속에서 노동을 다시 정의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속도 경제로의 이행 조건을 정의하고자 한 테일러주의는 노동하는 신체의 한계 자체를 전화(“기계적인 속도”)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가 남성성을 여성성과 구별하는 존재론적, 신체적 경계의 폭력적인 부정과 동일시된 것이다.

신체의 동작을 카메라로 측정하여 노동을 개조하려는 시도는 이미 노동과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기계공의 진술은 테일러주의의 기법(스톱워치)과 노동과학의 기법(사진술)이 결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테일러는 스톱워치를 고집하며 스스로는 이러한 기법을 거부해 왔다. 기계공의 경험(1913년)이 1915년에 사망한 테일러의 실험인지, 테일러 제자들에 의한 것인지 나타나있지 않지만, “테일러주의자들 Taylorizers”이라는 표현이나 사진술의 채택은 후자의 가능성을 높인다⁹⁾. 이 장면은 테일러

9) 본문의 인용문은 Livingston이 Montgomery(1987: 220-21)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리빙스턴과 몽고메리의 원문을 보면 회사 이름은 *New England Bolt Company of Providence, Rhode Island*이다. Nelson(1975)은 1901년에서 1917년 사이에 과학적 관리를 도입한 스물 아홉 곳의 회사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12-13년에 Rhode Island에서 과학적 관리를 도입한 곳은 *New England Butt company*이다. 테일러의 제자 가운데

주의와 노동과학의 갈등과 수렴을 보여주면서, 노동자 주체 위치의 위기가 어떻게 재현되는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것이다.

테일러의 제자이자 그의 사후에 테일러협회(Taylor Society)에 참여한 프랑크 길브레스(Frank Gilbreth)와 그의 부인 릴리언 길브레스(Lilian Gilbreth)는 과학적 관리를 옹호하며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공적인 논쟁에 참여하는 한편, 스톱워치를 사용하는 시간 연구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시간 연구와 구별되는 미세 동작 연구를 발전시켜 갔다¹⁰⁾. 테일러는 길브레스의 동작 연구를 시간 연구의 확장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뉴잉글랜드 버트 회사 실험(1912-13년, 각주 9)은 길브레스와 테일러의 사이가 벌어지는 계기가 된다. 이때는 테일러주의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투적인 대응이 고조된 시기다. 길브레스는 세계산업노동자연맹(IWW)과 미국노동총연맹(AFL)의 영향을 받은 버트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유희적인 접근을 병행함으로써 테일러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길브레스는 1914년에 결별을 선언하고 동작연구를 발전시킨다(Premeaux, 2003; Price, 1989).

그렇다면 노동자의 저항은 길브레스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길브레스 부부는 크로노사이클그래프를 이용한 동작 연구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으로써 이를 드러내고 있다:

Frank Gilbreth가 주요 전문가였다(Nelson, 1975: 66-78; Merkle, 49-50). 몽고메리 책의 전후 맥락이나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면 기계공이 경험한 것은 크로노사이클 그래프(본문 후술)를 고안한 F. Gilbreth의 실험일 것으로 추정된다. 1912-1913년에 길브레스가 실험한 곳은 *New England Butt company*가 정확한 명칭이다(<http://gilbrethnetwork.tripod.com/qv1n2.html>). 이 명칭이 미국의 국가등록정보체계(NRIS)와 연계되어 있는 역사적 명소 정보 제공 사이트인 <http://nrhp.focus.nps.gov>에서 검색되는 명칭이다. 리빙스턴과 몽고메리가 제시한 회사명칭은 오식인 것으로 보인다.

- 10) 동작 연구(motion study)라는 용어 자체가 길브레스가 명명한 것이다. 동작 연구 과정에서 길브레스가 사용한 기법이 1천분의 1초 단위로 동작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3차원으로 연속적으로 재생하는 크로노사이클그래프(chronocyclegraphs)이다. 길브레스는 처음에 이 기법을 발명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메이브리지의 영향을 받은) 마리의 시차사진술(과 동작 연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발전시켰다는 점을 인정했다(Premeaux, 2003). 길브레스는 도요타 자동차에서 테일러주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동작연구의 신으로 추앙된 인물이다.

동작 연구는 항상 피로 연구를 포함한다는 것...그리고 노동자는 이러한 표준들 하에서 작업하면서 최선의 방식으로 작업할 시간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노동에서 오는 피로에서 적절하게 회복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표준화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뒤따르는 끔찍한 단조로움”이다. 현재 심리학은...단조로움이 ...[이러한] 활동의 수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관심의 부족에서 온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동작 연구는 이러한 관심 [동기]을...직접적으로 부여한다(Gilbreth, 1916: 275, 괄호는 인용자).

기계공들의 반응으로 볼 때, 길브레스의 접근이 버트 노동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을 지는 의문이다¹¹⁾. 이러한 맥락에서 비슷한 시기인 1912년 프랑스 르노 자동차는 테일러주의, 노동과학과 노동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르노에 테일러주의가 도입되자 거의 두 달에 걸쳐 노동자 파업이 벌어진다. 생리학자로 노동과학에 기여한 아마르(Jules Amar)¹²⁾는 테일러가 노동자를 기계로 간주한다고 비판하면서 이 파업을 지지한다. 그가 테일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길브레스의 크로노사이클그래프가 모방한 시차사진술이다. 아마르는 시차사진술로 “움직이는 신체의 경로, [즉] 노동의 공간, 시간과 속도를 관통하는 법칙을 발견”해 에너지 손실, 과잉노동과 피로를 제거할 수 있으며, 일을 예술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마르의 제안은 작업 동작을 강제하고 속도경쟁을 일삼는 테일러주의와 비교하여 안락하며 자율적인 노동자 모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

11) 길브레스의 동작연구는 생전에 성공하지 못했으며, 1930년대 장비가격이 싸지면서 보급되기 시작한다(Price, 1989: 95).

12) 아마르는 피로 전문가로서 노동과학이 주관적인 요소의 개입으로 정확히 측정될 수 없는 피로 측정을 넘어서 에너지의 지출을 측정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Brauer는 아마르를 ergonomist(인간공학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피로를 연구하는 학문을 *ergographie*라고 명명한 것은 아마르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벨기에의 Josefa Ioteyko이며 (Rabinbach, 1990: 138-139, 186), ergo는 work이라는 뜻을 갖는 라틴어다. 노동과학과 인간공학/인체공학은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다.

다. 그렇지만 시차사진술에 따라 개조된 ‘노동의 예술’은 노동자로 하여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하는 신체를] 보이도록 조사하고, 병리학 화하고, 훈련하며 강제(강조는 인용자하는 것이었다. 파편화되고, 분해되며, 보일 뿐 말하지 않는 노동자의 신체는 의미의 생산(상징화)과는 관련 없는 익명의 신체가 된다(Brauer, 2002: 4, 6; Seltzer, 1992: 156-157도 참조).

아마르의 노동자는 자신의 신체를 자신의 언어로 상징화하며 자신의 신체를 영유하지 못하는 노동자이다. 이러한 인간학적 고유성을 잃어버린 노동과학의 신체가 테일러주의를 보완하며 테일러주의의 규정성 속에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가 길브레스인 것이다. 기계공들의 눈에 길브레스는 “테일러주의자”였다¹³⁾. 버트 회사의 기계공들은 “테일러주의자들”이 읽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거세되지 않았지만, 사고의 “거세” 공포를 가지고 있으며, 카메라의 가학적인 시선 앞에서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자신의 신체와 능동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하지만 피학적이 되지도 못하는 노동자이다.

노동과학은 노동자의 저항을 누그러뜨리는 테일러주의에 대한 해독제—피로 연구 더하기 “관심” 부여—를 고안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테일러주의와 노동과학의 결합 과정은 노동하는 신체 모델과 정신의 모델을 고안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지성과 분리된 노동하는 신체 모델과 심리학적 정신 모델이 그이다. “말하지 않는” 신체와 이러한 신체의 노동을 보철(prosthesis)하는 정신은 테일러주의 노동조직과 노동하는 신체 모델의 모순적인 결합에 대해 “적용”하는 길을 찾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정신, 즉 인간학적이고 상징적인 지적 고유성을 갖지 못하는 정신이었다.

길브레스 부부가 “표준화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끔찍한 단조로움이다. 현재 심리학은... 단조로움... 활동의 수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관심의 부족에서 온다는 것을

13) 릴리언 길브레스는 이 기법을 발전시키면서 작업 과정을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작업 속도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속도 감독”을 제안하기도 한다(Kern, 2004: 292).

입증하고 있다. 동작 연구는 이러한 관심(동기)을... 직접적으로 부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노동하는 신체 그리고 그것을 신체의 노동 외부로부터 보충하는 정신이 동일한 모델의 지배를 받는다고 선언한 셈이다. 이러한 모델은 신체와 정신을 피로, 스트레스, 에너지, 회복과 같은 어휘들로 특징 짓는 한에서의 엔트로피 모델이다. 1926년 미국노동총연맹 대회에서 1924년에 의장이 된 윌리엄 그린(William Green)이 다음과 같이 선언한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있다. 대량생산, 전문화와 표준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적 공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 새로운 산업질서에 우리 자신을 적응시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린은 이렇게 덧붙였다. 이러한 적응은 “회복”과 “재적용”을 위한 고임금과 여가의 증가에 달려 있다(Roediger and Foner, 1989: 237에서 재인용, 따옴표가 그린의 말이고, 나머지는 인용한 저자의 말이다).

1926년 미국노총 전국대회는 시민 노동자에게 고유한 신체와 정신의 인간학적인 상징화의 추구를 포기하며 과학적 관리—그리고 그 규정성 속에서 모순적으로 결합(제3장 제1절)된 노동과학—의 신체 모델과 정신 모델, 즉 새로운 주체성 모델에 대한 적응을 선언한 회의가 된 것이다. 1920년대는 노동을 매개로 자기 자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즉 자기소유의 토대로서 노동 그리고 테일러의 말대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체화의 길을 발견하는 시민 노동자 모델의 위기가 일반화된 시기이다. 그것은 동시에 “고임금”과 “여가”를 통한 고도소비의 향유, 즉 사물들(상품)을 포함하여 인간학적인 것—자기 자신 및 타자와의 관계—외부에 있는 것들과 맺는 관계에서 수동적으로 동일성의 장소를 찾았(Irigaray, 1996: 87), “회복”하며 “재적용”하는 소비자 시민의 주체 위치와 주체화 양식이 부상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안정옥, 2001).

4. 사회운동과 사회적 현대: 존재론적 차이, 인간학적 차이와 주체성의 모델

1) 노동자 공화주의와 모성 공화주의의 결합

시민 노동자의 주체 위치와 주체화 형태의 변화는 시민 노동자의 주체 위치가 놓인 모순적인 상황과 관련되는 것이다. 노동자 공화주의는 노동에 기초한 자기 소유라는 근대적인 노동의 인간학을 노동에 대한 지적, 윤리적인 관계, 즉 노동자의 “교양 있는 지성[집합적 지성]”과 “이타적 형제애[현대 윤리]”에 기초한 통제에 기초한 것으로 전화시키면서 시민으로서의 “자율성”과 “품위”를 추구하는 “시민 노동자”라는 주체화 모델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노동의 인간학은 근대적인 ‘노동의 인간학’과 ‘노동의 인간학적 분할’—19세기 후반 임금노동의 발전, 그리고 속도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20세기 초반 숙련노동의 해체, 구상노동과 실행노동의 분리, 경영통제의 집중—간의 길항 관계 속에서 발전한 것이며, 시민 노동자의 주체 위치가 자리를 잡은 곳은 이러한 모순이었다.

버트 회사 기계공들의 반응과 아마르의 사례가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주체 위치가 복수적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는 속도 경제 속에서 주체 위치의 변화를 살펴볼 때 인간학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버트 회사 기계공과 아마르의 노동자는 이러한 인간학이 노동의 인간학과 노동의 인간학적 분할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이 사례는 성적 차이의 인간학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속도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주체 위치 변화의 복잡성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운동, 노동과학 그리고 경영과학으로서 과학적 관리는 이 문제(의 구성)에 어떻게 관계하며, 상호작용하는가?

버트 노동자와 아마르 노동자의 사례에는 여성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세 은유는 이것이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 주체 위치(의 위기)를 인간학적으로 해명하는 데 있어서 노동의 인간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성적 차이의 인간학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거세 은유에서 버트 기계공과 아마르의 노동자가 어떤 성차 모델을 가지고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다. 더욱이 아마르의 노동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에 대한 정보는 없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버트 노동자가 주체성의 위기감을 거세로 재현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뚜렷한 남근 중심주의의 징표이다. 남근의 존재라는 가시적인 차이에서 동일성의 원천을 발견하는 남근 중심주의 자체가 남성적인 시각 중심주의를 반영하는 것(Irigaray, 1985: 46-55)이다. 이 사례들의 경우에 여기에 보는 자과 보이는 자 사이에 주체(화)와 대상(화), 남성과 여성의 성별화 경향이 작동해왔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남성 중심 문화에서 보이는 몸 또는 부분 대상으로 대상화되어 자신의 “존재적-존재론적 차이”의 고유성을 재현할 수 있는 “말이 발가벗겨지고,” “할 말[상징]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 즉 “주체성을 전유당하는” 것은 여성이지 남성이 아니다(Irigaray, 같은 책, pp. 133-146).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버트 회사의 기계공이 카메라의 시선 앞에서—부분대상으로 분해되어—수동적으로 보여지는 대상이 되는 경험을 거세의 위기감으로 재현한 것은 남성성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부분대상이 되어 “주체성을 전유당하는”—‘여성화’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서양에서 대중의 공포는 종종 여성(화)에 대한 공포로 환유되어 표현되곤 했다(Livingston, 2001: 26).

따라서 1913년 카메라의 가학적인 시선에 마주친 버트 노동자의 두려움 속에 배어 있는 성차 모델은 남성 신체의 가시적인 부분을 인간학적/문화적, 존재론적/자연적 동일성을 상징화하는 파라미터로 삼고, 여성성을 남근으로 상징화되는 남성성의 결여 또는 대칭적인 역상으로 상상하는 모델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차 모델과 노동자 공화주의의 시민 노동자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노동하는 신체와 그 한계의 모델, 즉 엔트로피적 신체 모델은 성적 차이의 인간학적 모델(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질문은 여성 노동일 단축 운동을 추구한 페미니즘과 혁신주의의 조류가 과학적 관리 및 노동과학과 일정하게 연계되어 있었다는 점에서도 던질

가치가 있다(4장).

19세기 후반 노동자 공화주의의 부상 과정이 여성운동, 특히 여성노동자 운동에서 모성 공화주의의 등장 과정과 결합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모성 공화주의는 근대적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성별 분업이 가지는 의미와 상상의 구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후반 노동기사단(*Knights of Labor*)의 등장과 함께 일어났다. 1880년대 노동자 운동 조직화의 가장 핵심에 있었던 것이 노동기사단이다. 기사단이 성공한 것은 작업장 연합뿐만 아니라 공동체(가족, 형제, 자매의 친족관계)와 종교단체를 폭넓게 조직했기 때문이다. 기사단의 노동자 운동은 여성의 조직화에도 심혈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기사단의 협동 공화국 비전과 기사단 여성의 모성 공화국 비전 결합을 결합하여 공적 세계와 가정성을 비판하고 재구성하고자 했다. 기사단 여성은 공장 노동자에서 파출부와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약 270곳의 여성지부와 약 130 곳의 혼성지부에서 약 6만 5천 명의 여성 회원을 포괄한 것으로 추정된다(Evans, 1998: 217-219).

노동기사단은 여성 노동자의 평등권을 옹호했고, 기사단 여성은 협동조합을 통해 '가사노동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기사단은 모성의 가치가 공적인 세계를 더욱 협동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기사단 여성의 모성 공화국의 비전은 모성의 가치에서 공적인 세계를 비판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비전은 공적인 세계에서 여성과 여성 노동자의 평등권을 추구하고 사적인 세계에서 가사노동을 협동조합적인 것으로 개혁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빅토리아적 가정성의 비전과 구별된다. 하지만 추구한 가치의 내용은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빅토리아 시기 가부장제에 의해 규정된 모성의 가치를 공적인 세계에 확장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빅토리아적 모성에 충실한 것이기도 했다. 모성 공화국의 비전은 1886년 헤이마켓과 전국적인 파업에서 8시간 노동일 요구가 비극적인 참사로 끝나면서 기사단과 함께 막을 내린다(Evans, 1998: 같은 곳).

기사단 여성의 비전은 여성의 존재론적/자연적/신체적 차이와 결부되어 온 모성의 가치를 공적 세계를 재구조화하는 원리로 승격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남녀 차이(차별)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 평등 모델과도 구별되는 것이다. 모성 공화국 비전이 삶의 양식을 재구조화하는 노동일(work-day) 단축 요구—하루 8시간의 노동, 자유와 안식—와 결합되었다는 것은 사회운동에서 여성(노동자) 운동이 갖는/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기엔 충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모성이 그 자체로 한편으로는 근대의 여명기에 신학과의 구별정립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과의 차이를 상징화하며 발전한 인간학적인 고유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기사단이 여기에 부여한 모성의 가치도 여성성을 임신,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것으로 환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모성을 둘러싼 행위, 의미와 상상의 구조로부터 자유로운 여성의 존재론적이고 인간학적인 차이, 즉 고유성에 대한 인식과 상상을 열어주는 것은 아니었다.

기사단의 노동자 공화주의와 모성 공화주의가 각각 직면한 내적인 모순은 다른 것이었다. 노동자 공화주의는 한편으로는 노동일 단축 요구에 함축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양식, 즉 개인적이고 집합적인 존재에게 의미를 갖는 행위와 상상의 구조로서 노동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의 인간학 사이의 모순 속에서 작동하였다. 기사단 여성의 모성 공화주의는 한편으로는 가사노동 개혁 주장에 함축된 가부장제로부터의 여성 해방,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적인 덕성으로 인식된 모성(성적 차이)에 의해서 조직되는 행위와 상상의 구조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상징화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보편화(공화주의)할 것인가라고 하는 특정한 유형의 성차의 인간학 사이의 모순 속에서 작동하였다. 기사단 노동자 공화주의의 절정이었던 노동일 단축 운동은 그것이 성공하는 만큼 노동(의 인간학)에 의해서만 정의되지 않는 삶의 여지를 넓혀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다른 종류의 삶과 성적 차이의 인간학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의 전개는 기사단 시기에 열렸던 기대지평과는 다른 방향을 띠었다.

2) 존재론적 차이, 인간학적 차이와 주체성의 모델

세기 전환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에서 여성운동, 특히 여성 노동자 운동과 여성 개혁집단은 사회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시기를 지배했던 대표적인 이슈가 바로 여성 노동일 단축 운동이었다. 이 운동에는 미국노동총연맹, 여성 노동자 운동(여성노동조합연맹, WTCL), 중산층 여성운동(전국소비자연맹, NCL과 여성단체연합, GFWC), 행정부의 개혁적인 관료와 전문가, 그리고—1920년대까지는 법인자본주의 질서에 통합되는— 혁신주의(Progressivism) 지식인(법률가)들이 주요한 정치사회적인 지지 세력을 이루었다(Sklar, 1988: 105; Skocpol, 1992: 373-401). 여성 노동일 단축 운동은 노동자 권리의 향상과 제도화라는 점에서는 '계급'의 역할을 수행했고, 노동자 운동과 중산층 개혁집단이 연합했다는 점에서는 계급을 가로질렀으며, 여성 내부의 연대를 발전시키며 여성 보호 입법의 물결을 이루게 했다는 점에서는 페미니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를 이루는 사회운동이었다.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에서 노동조건, 특히 노동일을 규제하는 법률은 특정 직업 집단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노동시간 규제를 주정부에서 입법화해도 노동 조건은 개인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의 자유에 따른다는 사법부의 논리는 제도화를 가로막는 주요한 장벽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를 어떻게 넘어서느냐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세기 말부터 지속적으로 발전한 여성 노동일 단축 운동은 보수적인 사법부의 계약 자유의 논리(자유방임주의)를 우회하며, 노동일 단축 입법화의 주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그렇지만 사법부의 장벽을 넘어서며 여성 노동일 입법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기사단의 노동자 공화주의나 기사단 여성의 모성 공화국의 비전과 다른 것이었다. 사법부의 계약 자유의 논리를 넘어서기 위해 여성 노동일 단축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노동과학적인 논거와 사회학적 논거가 주요하게 부각된 것은 윌러 대 오레건 주 소송사건(Curt Muller vs. State of Oregon, 1908)에서였다. 이 소송에서 여성노동자의 노동일을 10시간으로

제한한 오레건 주 법률의 합헌 판결은 여성 노동일 규제 입법과 여성 보호 입법이 확산되는 데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한다(Sklar, 1988; McGuire, 2006; Skocpol, 1992: 373-401). 이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혁신주의의 법률가 루이스 브랜디스(Louis Brandeis)와 미국소비자연맹(NCL)의 조세핀 골드마크(Josephine Goldmark)다.

두 사람이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여성과 산업》(Brandeis and Goldmark)—일명 “브랜디스 적요서(Brandeis Brief)”—은 빈민구제 기관인 헐 하우스(Hull House) 활동가 출신으로 엥겔스(F. Engels)의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의 고전적인 최초 영문판(1886) 번역자이자, 뒤에는 법인자본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며 전국소비자연맹을 이끈 플로렌스 켈리(Florence Kelley)와 연맹 조사부 골드마크의 광범위한 조사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조사는 이후 사법부로 하여금 [사회의 역사로부터 추상된 계약 이론(소유적 개인주의와 계약자유)보다 현실의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학적 증거”에 주목하게 만든 주요 선례(McGuire, 2004: 227-230, 2006)를 남기는 한편, “장시간 노동의 위험”(제2부 1장)을 입증하기 위해 인간의 심리-생리학적 능력이 노동시간 길이 및 노동부하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유럽의 연구 결과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노동조건 개혁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과 노동과학적 접근이 부상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이룬다.

이와 같은 노력은 《피로와 효율성》(Goldmark, 1912)이라는 체계적인 저술로 발전한다. 일차대전 시기인 1915년의 소송사건에서 연방대법원에 제출된 적요서인 《노동일 단축을 위한 변론》(Frankfurter and Goldmark, 1915)은 1908년의 적요서의 내용을 확장하여 천여 쪽을 넘기는 폭넓고 치밀한 작업 결과를 담고 있다. 이 자료들의 공통점은 미국과 유럽에서 이루어진 입법 사례의 역사(제1부)를 비교하고, 노동일 단축의 정당화 논거로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의 관계에 대한 영향에 대한 노동과학의 연구결과(제2부)를 제시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점이다. 중요한 차이도 존재하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소송 사건(1908년, 1915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1910년대에 진전된 변화(1908

년, 1912년, 1915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이 시기 과학적 관리, 노동과학과 사회운동의 상호작용이 노동자의 존재론적/신체적 차이, 인간학적/상징적 차이와 주체성 또는 시민주체의 모델에 대해 어떠한 합축을 갖는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

1908년 재판에서 결국 연방대법원은 전국소비자연맹의 손을 들어준다. 하지만 그 논거에서 부각된 것은 노동과학적인 논거나 사회학적 논거라기 보다는 현실적, 잠재적 어머니로서 여성의 특별한 지위와 육체적 허약성이다. 이러한 남녀 간의 “차이가 (두 성에 대한) 법률적 차이를 정당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거는 재판부가 처한 딜레마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 간의 차이는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는 상이한 법칙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얼마 전의 대법원 판례(Lockner vs. New York, 1905)를 기각하지 않기 위해 “남성에게는 그러한 법률이 필요하지 않고 지지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특별한 지위와 육체적 허약성은 법률적 차이를 허용한다는 논리를 채택했던 것이다(Sklar, 1987: 123-24)¹⁴). 일부 여성 노동운동 지도자는 여성의 “근본적인 취약함”에 기초한 판결을 비판했지만, 플로렌스 켈리는 이 판결이 여성 노동자를 위한 입법, 나아가서 모든 노동자에 대한 보호 입법에 유리한 선례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다(McGuire, 2006: 3). 그녀의 예견대로, 이 판결은 1910년대에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입법의 붓물이 터지게 하는 데 결정적인 전환점(McGuire, 2004)이 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1930년대 연방수준의 뉴딜 공정근로기준법(1938)이 마련되는 데에도 긍정적인 선례를 제공했다.

그렇지만 여성운동 내부에서 논란의 씨앗은 이미 《여성과 산업》에 잠복되어 있는 것이었다. 적요서는 여성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의 위험 “원인” 가운데 하나를 “남성과 여성간의 신체적 차이(Brandeis and Goldmark,

14) 판결 원문은 Goldmark(1912: 320-326)에 수록되어 있다. Brandeis and Goldmark (1908), Goldmark(1912) 및 Frankfurter and Goldmark(1915(1916))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의 온라인 역사 데이터베이스인 *Open Collections Program: Women Working, 1800-1930*(<http://ocp.hul.harvard.edu>)에 접속해서 볼 수 있다. 골드마크는 자신의 저작 말고는 공식적으로는 조수로 참여했지만, 여기에서는 공저자로 표기한다. 출판년도는 초판을 기준으로 하였다.

1908: 18-23)”에서 찾고, 장시간 노동이 “출산 및 여성의 기능들에 미치는 특별히 해로운 영향(같은 책, pp. 36-42)”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초과노동이 미래 세대에게 미치는 효과(같은 책, pp. 51-55)”라는 “전체의 복지”의 차원에서 “국가가 여성을 보호할 필요성(같은 책, pp. 47-51)”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신체의 “구조와 기능”의 차이, 즉 “해부학적이고 생리적인 차이들”일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견디는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남성보다 약한” 여성의 의학적 차이들(“근력”, “신경 에너지”, “지속적인 집중...능력”의 근본적인 취약성)과 관련되는 것이었다(같은 책, p. 18).

이와 같은 의료-생리학적인 접근에 대한 인용은 (여성)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도덕”과 “전체의 복지”를 위해 노동일 단축의 과학적인 논거를 뒷받침하려는 것이었다(같은 책, pp. 18-112). 하지만 《여성과 산업》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가정되는 성적 차이들은, 여성 또는 여성 노동자가 여성으로서 자신과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게 하는 존재론적/신체적 차이이기보다는, 여성이 사회 또는 공동체(“전체의 복지를 위해”)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이유가 되는 차이들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판결의 논리와 근본적으로 대립하지 않는다. 여성 노동일 단축이 전체를 위한 복지가 되는 까닭은 그것이 “미래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다는 점에서 시민으로서 여성의 권리는 잠재적, 현실적인 ‘어머니’로서의 여성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¹⁵⁾.

《여성과 산업》은 후속하는 작업들에 깊은 영향을 미치지만 《피로와 효율성》(1912) 그리고 《노동일 단축을 위한 변론》(1915)에서 나타나는 변화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이다. 《피로와 효율성》에서 눈에 띄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변화이다. 하나는 “II. 피로의 본질”에 대한 노동과학적 연구 성과를 매우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VII. 새로운 경영과학: 인간의 에너지에 대한 그것의 관계”라는 제목에 함축되어 있

15) 《여성과 산업》과 《노동일 단축을 위한 변론》에는 모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종의 쇠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담겨 있다. 혁신주의 지식인들의 백인 중심성에 대해서는 박진빈(2006)을 참조할 수 있다.

다. 이 장은 “통상적인 속도 증가”의 방식과 “종류”가 다른 속도 증가를 달성한 “과학적 관리”라는 “새로운 체계”의 “혜택”과 “위험[피로, “단조로움,” “성과급”에 의한 “노동력의 남용” 등]”에 대해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핵심적인 질문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브랜디스의 영향이 뚜렷하다. 《여성과 피로》가 나온 두해 뒤인 1910년에 테일러주의를 “정신혁명[테일러]”인 과학적 관리로 명명한 사람이 브랜디스이다(Noble, 1977: 271). 브랜디스, 골드마크나 프랑크퍼터에게 노동일 단축은 테일러주의에 대한 노동자의 반대가 확고한 상황에서 테일러주의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해독제[골드마크]”로 기능하면서 과학적 관리의 혜택(생산성의 비약적 증가)을 사용자와 노동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공유하며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된다(Roediger, 1988: 137; Goldmark, 1912: 208-210)¹⁶.

노동과학은 신체의 한계와 생산성 증가를 양립시킬 법칙을 발견하는 독자적인 체계로서 과로와 소모를 조직하는 야만적인 체계인 ‘테일러주의’와 더 이상 대립하지 않는다. 신체의 노동과 안전을 다루는 노동과학은 1910년대에 들어서며 ‘과학적 관리’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독하는 데 기여하는 위치, 즉 과학적 관리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며 과학적 관리의 해

16) 《피로와 효율성》은 테일러의 사후에 설립된 테일러협회와 친화적인 관계를 맺었던 리셀 세이지 재단의 후원을 받아 연구되기도 했다. 당시 리셀 세이지 재단은 브랜디스, 프랑크 퍼터, 뉴딜 전국노사관계법을 마련한 로버트 와그너(Robert Wagner), 뉴딜 노동부 장관 프란시스 퍼킨스(Francis Perkins), 기업가, 친노동자적인 사회과학자와 비정통적인 경제학자들을 엮어준 제도적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였다(Fraser, 1989: 59-62). 이들은 뉴딜 연합의 핵심을 형성한다. 브랜디스와 골드마크는 같은 가문에 속했다. 1920년대 프랑크퍼터와 켈리/골드마크의 관계는 최저임금법의 제정문제를 둘러싸고 금이 간다. 1908년의 밀러대 오레건 주의 여성 노동자 노동일 단축 판결은 최저임금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일의 단축이 수입의 감소를 뜻할 수 있었다. 켈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노동운동조직들과 함께 ‘생활임금’으로 이해될 수 있는 최저임금법 제정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다(McGuire, 2004). 여성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은 1938년 공정근로기준법에 의해 제도화지만 19세기 후반부터 발전한 생활임금 모델이 아니라 최저생계비 개념에 입각한 것이 된다) 19세기 후반 노동자 공화주의와 함께 발전한 생활임금 운동과 1938년의 근로기준법으로 귀착된 최저생계비 운동의 궤적, 관계, 논리에 대해서는 Glickman(1997)과 Stapleford(2008)을 참조할 수 있다.

모니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자리에 놓이게 된다.

우리가 여성과 남성 모두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것(그리고 과학적 관리가 불러일으킨 의구심들을 가라앉힐 유일한 대답)은 강화된 과업의 강도에 신체가 궁극적으로 적응하는 것(physical adjustment)에 관한 더 많은 지식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효율성 전문가[노동과학]의 선구자였던 인물—아베(Ernst Abbé)—이 주목하며 몰두한 주제의 하나였다. 그 또한 노동능력의 연구자였다. 아베는 사람(men)이 가장 짧은 시간 간격에 최대(most)한 일을 수 있는 최적(the optimum)을 모색하였다(Goldmark, 1912: 206, 굵은 글씨와 꺾쇠는 인용자).

《피로와 효율성》의 편제에는 《여성과 산업》과 달리 여성의 신체적 차이에 관한 내용이 크게 축소된다. 이것은 경험적 차원에서 볼 때는 “과학적 관리가 최근의 것이라, 여성에게 미친 숫자가 비교적 적고, 많은 증거가 축적되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Goldmark, 1912: 205)”고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노동일 단축의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학적 관리가 “인간 에너지” 또는 “노동능력의 증가와 감소(같은 책, p. 33-9)”에 미치는 “내재적인(같은 책, p. 204)”인 “위험들”—“3. 새로운 시스템의 위험들(같은 책, pp. 203-07)—이 눈에 더 크게 들어올수록 신체의 존재론적 경계(소속, 성적 차이)보다는 신체의 한계 모델, 즉 힘/에너지 모델로서 신체의 엔트로피 모델에 더 집중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속도 경제가 완성되고 피로 연구에 기초한 노동일 단축의 논리가 확산된 1920년대(Webster, 1921; 미국노동부 여성국)에 여성의 성적 차이에 바탕을 두고 여성 노동자의 노동일 단축을 정당화한 여성의 특별한 지위론이 쇠퇴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1929년 펜실바니아 주정부가 “여성이 더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한 여가”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당 44시간 노동 법안을 도입하자 한 신문은 이러한 담론보다 산업 효율, 피로, 건강과 관련된 논거가 더 효과적일 것이고

주장한다(Kessler-Harris, 1982: 200-201). 20세기 전반기의 최대 파고 (Dubofsky, 1995; Silver, 2005: 191-193도 참조)를 그린 “파업의 연대 (Montgomery, 1979: 93-6)”였던 1910년대가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연대를 실험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전환점¹⁷⁾”이 되면서 1920년대는 속도 경제가 보편화하고 지적, 육체적 노동 분할이 가속화하면서 노동자 공화주의의 궤적이 마감된 시기이자, 1910년대 참정권 운동에서 절정에 달한 페미니즘이 1920년대에는 여성 공동의 경험과 비전의 퇴조, 집단별 분화와 개인주의의 확산 속에서 여성의 성, 여성 평등과 성적 차이, 여성권의 전망과 토대의 재구성을 둘러싸고 부침한 시기가 된다(Evans, 1998: 277-303).

5. 맺음말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로의 전환기를 거쳐 1920년대가 맞이한 상황은 결국 속도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어난 주체성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베버가 노동윤리 없는 노동의 발전에 대해 토론했던 당혹은 이 문제와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노동에 기초한 자기 소유 또는 신체와 정신의 자기 소유의 토대로서 노동이라는 노동의 인간학을 바탕으로 탄생한 근대적 시민 주체 모델의 위기에 대한 당혹이었다. 노동과학, 경영과학으로서 테일러주의, 사회운동의 상호작용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유럽에서 노동과학에 의한 인간학적 신체의 해체는 노동의 인간학 없는 노동 개념을 발전시키고,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분리하여 근대적, 공화주의적 시민 주체의 모델과 권리를 재정의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부상한 문제가 엔트로피적 신체 모델 또는 노동하는 신체의 에너지의 한계

17) David Brody(1965), *Labor in Crisis: The Steel Strikes of 1919, Philadelphia and New York*, Davis(1994:71)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모델이었다. 미국에서 경영과학으로서 테일러주의는 노동을 조직하는 원리의 재편을 통해 신체의 한계를 전환하고 속도 경제로의 이행을 달성하고자 하였고, 신체의 한계를 초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과학을 보조적인 접근 방식으로 수용하였다. 이 과정은 연대 윤리와 결합된 집합적 지성을 바탕으로 노동의 인간학을 실천적으로 쇄신하고 시민으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추구하고 부당한 노동자 공화주의의 시민 주체 모델의 쇠퇴를 조건으로 하였다. 경영과학으로서 테일러주의에 함축된 주체 모델은 1930년대 뉴딜을 경유하며 소비자 시민 모델로 구체화된다(안정옥, 2001).

노동과학과 과학적 관리의 부상 과정에서 인간학적 신체의 해체와 노동하는 신체의 한계 문제만이 아니라 신체의 존재론적 경계 또한 문제가 되었다. 이 문제는 여성 노동자의 노동일 단축의 정당화 문제와 결합되었다. 이러한 정당화를 위해 풍부하게 인용된 것이 또한 신체의 한계와 피로에 노동과학의 연구 성과이다. 노동과학이 인간학이 엔트로피적 신체 모델을 통해 인간학적 신체를 해체하는 한에서 노동과학이 (여성적인) 성적 차이의 인간학과 결합되기는 어려웠다. 노동과학이 가정하는 성적 차이는 인간학 없는 의료-생리학적인 또는 생의학적인 성적 차이—해부학적, 생리학적인 신체의 구조, 기능과 힘— 모델이었다.

노동과학과 여성의 특별한 지위(모성 담론, 가정성 이념)가 결합하여 여성 보호를 정당화하는 논거가 된 것은 노동과학 고유의 논리라기보다 사회적, 자연적 차이가 없는 추상적 개인 모델에 따라 집단적 계약 관계 또는 권리의 제도화를 부정하는 제약 자유 이념(소유적 개인주의 그리고 이와 결합된 공화주의)이라는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 노동을 위한 노동일 단축의 성공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입법의 붓물이 터지게 하는 개혁입법의 결정적인 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공은 사회적, 자연적 성적 차이와 시민으로서 여성의 권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었지만, 속도 경제로의 이행이 완성되어가며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 구조는 닫혀갔다.

결국 1920년대 속도 경제로의 이행이 완료되기까지 근대적인 주체성 모델의 위기와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내포되어 되어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속도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의 노동 또는 노동하는 신체의 한계라는 문제는 노동에 대한 노동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노동의 인간학의 쇄신, 시민으로서 노동자의 권리 및 역능화(力能化) 방향에 대해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둘째, 신체의 성, 즉 신체의 존재론적 차이/경계를 어떻게 사고할 것이며, 그것이 또한 여성 자신의 성에 대한 여성/여성노동자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성적 차이의 인간학의 쇄신, 시민으로서 여성의 권리 및 역능화 방향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또 이 두 질문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들은 신체의 한계와 경계가 문제되는 한 현재 진행형의 것이다.

20세기로의 전환과 21세기로의 전환은 주체성 모델의 인간학(문화/상징)적 위기와 존재론(자연/현실)적 위기가 동시에 부상한 시기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속도 경제로의 이행기에 나타난 주체성 모델의 위기에 대한 검토는 현재에 대한 비교준거로서뿐만 아니라, 시민 주체의 모델에 대한 인간학적, 존재론적 접근의 적실성을 확인하는 의미도 가질 것이다. 오늘날 20세기 속도 경제 모델의 엔트로피와 그 전환의 한계 속에서 신체의 노동은 더욱 비가시적인 것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상하고 있는 정신의 모델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시민 주체의 모델을 재정립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는가?

참고문헌

- 박진빈(2006), 『백색국가 건설사: 미국 혁신주의의 빛과 그림자』, 앨피.
 안정옥(2001), 「소비적 현대성과 사회적 권리: 미국 헤게모니의 사회적 기원과 한계」, 『경제와 사회』, 제52호, 66-95쪽, 한국산업사회학회.
 정태욱(1994), 「자연법 개념 연구」, 『민주법학』, 제7호, 101-129쪽, 민주법학 연구회.

- Akin, William E.(1977), *Technocracy and The American Dream: The Technocrat Movement, 1900-1941*, Berkeley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Anthony, P. D. (1977), *The Ideology of Work*, New York: Tavistock Publications.
- Bahnisch, Mark(2000), "Embodied Work, Divided Labour: Subjectivity and the Scientific Management of the Body in Frederick W. Taylor's 1907 'Lecture on Management,'" *Body and Society*, 6(1): 51-68.
- Arrighi, G.(1994), *The Long Twentieth Century: Money, Power, and the Origins of Our Times*, London: Verso.
- Bauman, Zygmunt(1998), *Work, consumerism and the new poor*, Berkshire: Open University Press.
- Bell, Daniel(1990),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김진욱 옮김, 문예출판사.
- Brandeis, Louis D, assisted by Josephine Goldmark(1908), *Women in Industry: Decision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Curt Muller vs. State of Oregon: uphold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Oregon ten hour law for women and brief for the State of Oregon*, New York: Reprinted by the National Consumers League.
- Brauer, Fay(2002) "Masochism, Sadism, and the 'Human Motor' Sacher-Masoch's Furs and Jules Amar's Art of Work." on http://www.artgallery.nsw.gov.au/aaanz_2002/abstracts_menu/disciplining_body.
- Chandler, Alfred, Jr.(1977): *The Visible Hand: The Managerial Revolution in American Business*,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0), *Scale and Scope: The Dynamics of Industrial Capitalism*,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Cohn, Norman(1993), 『천년왕국운동사』, 한국신학연구소.
- Cross, Gary(1986), "Worktime Between Haymarket and the Popular Front::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Class History*, 30: 79-93.
- _____ (1990), *A Social History of Leisure since 1600*, State College: Venture Publishing, INC.
- Deleule, Didier(1992), "The Living Machine: Psychology as Organology," in Jonathan Crary and Sanford Kwinter(eds.) *Incorporations (Zone 6)*, New York: Zone, pp. 202-233.
- Dephew, David J. and Bruce H. Weber(1995), *Darwinism Evolving: Systems Dynamics and the Genealogy of Natural Selection*, Cambridge: The MIT Press.
- Donzelot, Jacques(1991), "Pleasure in Work," in Graham Burchell, Colin Gordon and Peter Miller,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with Two Lectures By and An Interview with Michel Foucaul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2005), 『사회보장의 발명(L'invention du social): 정치적 열정의 쇠퇴에 대한 시론』, 동문선.
- Doran, Nob(2004), "Rewriting the Social, Re-Writing Sociology: Donzelot, Genealogy and the Working-Class Boies,"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29(3): 333-357.
- Dubofsky, Melvyn(1995), "Labor Unrest in the United States, 1906-90," *Review*, 18(1): 125-135.
- Dumenil, Gerard and Dominique. Levy(1995), "The Great Depression: A Paradoxical Event?," <http://www.cepremap.cnrs.fr/~levy>.
- Evans, Sara M.(1998) 『자유를 위한 탄생: 미국 여성의 역사』, 조지형 옮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Feynman, Richard(2004a)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I-I』, 박병철 옮김, 승산.
- _____ (2004b)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I-II』, 박병철 옮김, 승산.
- Foster, John Bellamy and Paul Buckett(2008), "Classical Marxism and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Marx/Engels, the Heat Death of the Universe Hypothesis, and the Origins of Ecological Economics,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21(3): 3-37.

Foucault, Michel(2003), 『감시와 처벌』, 오생근 옮김, 나남출판.

Frankfurter, Felix; assisted by Josephine Goldmark(1916[1915]), *The Case for the shorter work day: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October term, 1914, Franklin O. Bunting, plaintiff in error vs. the State of Oregon, defendant in error: brief for defendant in error*, New York: Reprinted by National Consumers League.

Fraser, Steve(1989), "The 'Labor Question'," in Steve Fraser and Gary Gerstle(eds.) *The Rise and Fall of the New Deal Order, 1930-198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Gilbreth, Frank B. and Lillian M.(1916), "The Effect of Motion Study upon the Worker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5: 272-276.

Glickman, Lawrence B.(1997) *A Living Wage: American Workers and the Making of Consumer Socie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Goldmark, Josephine C.(1913[1912]), *Fatigue and Efficiency: a study in industry*, New York: Survey Associates.

Harvey, David(2000), 『희망의 공간: 세계화, 신체, 유토피아』, 최병두 · 이상울 · 박규택 · 이보영 옮김, 한울.

Horkheimer, M. and Th. W. Adorno(1995), 「육체에 대한 관심들」, 『계몽의 변증법』, 김유동 · 주경식 · 이상훈 옮김, 문예출판사, pp. 315-322.

Irigaray, Luce(1994[1989]), *thinking the difference: for a peaceful revolution*, New York: Routledge.

_____ (1996[1974]), *Speculum: Of the Other Woman*, Ithaca, N.Y.:

- Cornell University.
- _____ (1996[1990]), 『나, 너, 우리: 차이의 문화를 위하여』, 박정오 옮김, 동문선.
- Kern, Stephen(2004),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1880-1918』, 박성관 옮김, 휴머니스트.
- Kessler-Harris, A.(1982), *Out to Work: A History of Wage Earning Women in the United Stat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rippner, Greta R.(2001), "The Elusive Market: Embeddedness and the Paradigm of Economic Sociology," *Theory and Society* 30: 775-810.
- Kumar, Krishan(1988), "The Social Culture of Work: Work, Employment and Unemployment as a Ways of Life," in his *The Rise of Modern Society: Aspects of the Social and Political Development of the West*, New York: Basil Blackwell.
- Livingston, James(2001), *Pragmatism, Feminism and Democracy: Rethinking the Politics of American History*,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Locke, John(1996), 『통치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그 목적에 관한 시론』, 강정인·문지영 옮김, 까치.
- Merkle, Judith A.(1980), *Management And Ideology: The Legacy of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Management Movement*, Berkeley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cGuire, John. T(2004) "From the Courts to the State Legislatures: Social Justice Feminism, Labor Legislation, and the 1920s," *Labor History*, 45(2): 225-246.
- _____ (2006), "Making the Case for Night Work Legislation in Progressive Era New York, 1911-1915," *Journal of the Gilded Age and Progressive Era*, 5(1): 1-56.
- MacPherson, Crawford, B.(1991), 『소유적 개인주의의 정치이론 : 홉스에서 로크까지』, 이유동 옮김, 인간사랑.

- Montgomery, David(1979), *Workers' Control in America: Studies in the History of Work, Technology, and Labor Struggl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8), *The Fall of the House of Labor: The Workplace, the State, and American Labor Activism, 1865-192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Citizen Worker : The Experience of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with Democracy and the Free Market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lson, Daniel(1975), *Mangers and Workers: Origins of the New Factory System in the United States, 1880-1920*, Lond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Nietzsche, Friedrich(1982), 『도덕의 계보』, 김태현 옮김, 청하.
- Noble, David F.(1977), *America By Design: Science, Technology and the Rise of Corporate Capitalism*,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 Nyland C.(1989), *Reduced Worktime and the Management of P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emeaux, Sonya F.(2003), The Flying Horse: Eadweard Muybridge's Contribution to Motion Study, *Journal of Applied Management and Entrepreneurship*, October(<http://findarticles.com>).
- Price, Brian(1989), "Frank and Lillian Gilbreth and the Manufacture and Marketing of Motion Study, 1908-1924," *Business and Economic History*, 18(2): 88-98.
- Rabinbach, A.(1986), "The European Science of Work: the economy of the body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in Steve. L. Kaplan and Cynthia. J. Koepp(eds.), *Work in Franc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pp. 474-513.
- _____ (1990), *The Human Motor: Energy, Fatigue, and the Origins of Modernity*, Basic Books.

- _____ (1992), "Neurasthenia and Modernity," in Jonathan Crary and Sanford Kwinter(eds.) *Incorporations(Zone 6)*, New York: Zone, pp. 178-189,
- Rosenberg, Martin E.(1993), "Dynamic and Theomodynamic Tropes of the Subject in Freud and in Deleuze and Guattari," on <http://muse/jhu.edu/journals/postmodernculture/voo4/4.1rosenberg.html>.
- Rodgers, Daniel(1978[1974]), *The Work Ethic in Industrial America, 1850-192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ediger, David R.(1988), "The Limits of Corporate Reform: Fordism, Taylorism, and the Working Week in the United States, 1914-1929," in Gary Cross(ed.) *Worktime and Industrialization: An International History*, Temple University Press.
- Roediger, David R. and Philips S. Foner(1989), *Our Own Time: A History of American Labor and the Working Day*, London and New York: Verso.
- Seltzer, Mark(1992), *Bodies and Machine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Shilling, Chris(2003), 『몸의 사회학』, 임인숙 옮김, 나남 출판.
- Silver, Beverley(2005), 『노동의 힘: 1870년 이후의 노동자 운동과 세계화』, 백승욱 · 안정옥 · 윤상우 옮김, 그린비.
- Sklar, Kathryn K.(1988), "The Greater Part of the Petitioners are Female: The Reduction of Women's Working Hours in Paid Labor Force, 1840-1917," in Gary Cross(ed.) *Worktime and Industrialization: An International Histor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Skocpol, Theda(1992), *Protecting Soldiers and Mothers: The Political Origins of Soci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Smith, Eric and Duncan K. Foley(2005), "Classical thermodynamics and

economic general equilibrium theory,” on
<http://epa.newschool.edu/~foleyd/econthermo.pdf>

Stapleford, Thomas A.(2008), “Defining a ‘living wage’ in America: transformations in union wage theories, 1870-1930,” *Labor History*, 49(1): 1-22.

Weber, Max(2004),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성수 옮김, 문예출판사.

Webster, George W.(1921), *A Physical Basis for the Shorter Working Day for Women*, Bulletin No. 14, February 1921, U.S Department of Labor Women’s Bureau,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Whyte, William H.(1956), *The Organization Man*, New York : Simon and Schuster

Zunz, Olivier(1990), *Making America Corporate, 1870-1920*,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인터넷 웹페이지

1. 인간학(철학적 인간학, Philosophical Anthropology, philosophy of man)

<http://www.britannica.com/EBchecked/topic/456743/philosophical-anthropology>

2. Josephine C. Goldmark 관련 자료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 *Open Collections Program: Women Working, 1800-1930*

<http://ocp.hul.harvard.edu>

3. Frank B. and Lillian M. Gilbreth 관련 홈페이지

<http://gilbrethnetwork.tripod.com/>

The Rise of the Economy of Speed and Modern Subjectivity:

Science of Work, Managerial revolution, and Citizen-Subjects

Ahn, Jeong-ok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1870s to 1920s, European Science of Work, Scientific Management(Managerial Revolution) and social movements had developed different approaches to and practices on laboring body and sexed body. The transition to the economy of speed made their interaction very visible and conflictual, because different approach implied different philosophy of man –more properly, philosophical anthropology, which is different from cultural anthropology– and hence difference in the model of citizen-subject. Since the rise of the Protestant work ethic, work became the modern basis of self-property and subjectivity and took the central place of the civic thoughts and order. What was put into crisis in this period was these thoughts and order. With this in mind, this article traces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Science of Work, Scientific Management and social movements(workers' movement, Progressivism, and women's movement) and their interactive effects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modern idea of work, body and citizen-subject by applying the method of incorporated comparison.

Key Words

economy of speed, modern subjectivity, science of work, managerial revolution, citizen-subject